운동으로서의 집중력과 치열성

지역문화운동의 선명한 지향성 보이는 광주출판

다른 여느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의 출판여건도 서울의 주체할 수 없는 풍요와는 비교하기 민망할 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직할시에 해당하는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출판사의 수가 1~200여사나 되어 숫적으로는 자칫 그럴듯해 보일지도 모르나 독자적인 기획하에 원고를 청탁하고 제작하여 번듯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제대로의 출판사란 실제 열 손가락이 가지러울 정도이다.

비록 몇안되는 숫자이기는 하나 필자난 인쇄·유통구조의 취약 등 인적 물적자원의 열악함 속에서도 출판사로서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들 지방출판사들의 역할은 해당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컬러를 드러내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출판행위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되는데, 광주에는 다른 여타 지역의 출판 컬러와는 틀린 독특한 양상으로 '광주적'인 특징을 뚜렷이 드러낸다.

대개의 지방출판사들이 시나 수필 등의 지역문인들의 문학적 성과물을 담아내는 가운데 한두 군데 정도가 전문도서나 인문사회과학류를 출판하는 구성비를 보인다면 광주는 그 반대쯤으로 생각해두면 얼추 맞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출판사의 대부분이 단순한 문예물 수준이 아닌 사회 제반모순에 눈뜨게 하는 '운동으로서의 출판'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광주는 80년 5월의 체험 이후 더욱 확고히 다져진 시민들의 반독재 민주자주의식으로 활발한 지역문화운동을 피워올렸었고, 출판활동 역시 그러한 분위기와 결코 무관할 수 없었던 것이 출판'운동'으로 광주적 특징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이 지역 출판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책이야말로 운동의 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널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현재 광주에는 '광주' '들불' '참' '한' '빛고을' 등의 출판사들이 문예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지역운동의 성과물을 담아내는 한편 사회과학 이론서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출판사들로 꼽힌다.

이 가운데 지난 85년 김준태(시인) 전용호(마당극운동가) 임동확(시인) 박호재(소설가) 등 문화운동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운동으로서의 출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의 이념을 내걸고 공동출자방식으로 설립된 도서출판 '광주'는 이들 운동권출판사의 대표격이자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출판사다. 지난 7년여 동안「5·18광주민중항쟁증언록」「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꼭 원자력이어야만 하는가」「사회과학독본」 등 광주항쟁 관련 자료집이나 반핵운동 및 일반사회과학 도서들과,「민족현실과 지역운동」「민족현실과 문학운동」 등 지역운동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논리화한 무크들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필자들을 발굴해왔다.

> **대개의 지방출판사들이 시나 수필 등 지역문인들의 문학적 성과물을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면 광주의 출판사들은 대부분이 단순한 문예물 출판이 아닌 사회의 제반모순을 들춰내는 '운동으로서의 출판'을 지향하며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출판물의 압수와 수색, 편집부원들의 구속 등 거듭되는 수난과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몇번이나 문을 닫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겨왔는데 출판사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책임을 넘겨받는 독특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광주'를 지켜오고 있다.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예전의 열기가 퇴조하고 있고, 영세한 지방출판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갈 현실적인 방안으로 앞으로는 문예물 출판으로 방향전환을 해나갈 것이다"고 편집장 정해천 씨는 말하는데, 내부 구성원들이 주로 광주청년문학회 회원들인데다 광주전남민족문학인협의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필자확보'라는 지역출판사의 큰 고충 하나는 해결해 놓은 셈이다. 이 지역에 다수 포진해 있는 유명작가들과 서울의 출판사 사이에 연결된 끈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박혜강의「다시 불러보는 그대 이름」, 박호재의 단편선을 기획하고 있다.

'광주'출판사가 문예물로 성격을 굳혀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89년 출판사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14종의 사회과학서를 발간해온 '한'출판사는 현재의 사회과학의 위기를 오히려 이 분야 출판의 호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내다본다.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올바른 철학을 심어줄 '사상서'출판에 주력해온 '한'은 그동안「민족해방 민중주주의 혁명론」「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 등과 같은 강도높은 기획출판과 북한원전의 소개로 직원들의 일부가 구속되어 있거나 나머지도 수배상태에 있어 편집부사무실이 사실상 폐쇄된 거나 다름없지만 현재도 출판물은 끊이지 않고 나온다.

"비록 지역출판사이기는 하나 지역의 성과물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의 잘못된 경향성을 바로 잡아 나가는 기획물들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이 출판사의 서울영업소의 류덕렬씨는 서울의 집중되어 있는 사회과학출판의 일정량을 '한'과 같은 출판사가 나눠짐으로써 지방출판의 역량을 과시하는 한편 지방출판의 활성화에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2년여 전부터 서울의 편집부를 광주로 옮겨왔던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인 '한마당'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출판운동의 사명감 하나로 버티어오던 광주출판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89년「민중의 바다」사건 이후 하는수없이 서울에는 영업소만 남기고 기획진 모두가 광주로 옮겨온 것이지만, 80년대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출판사이던 '남풍'과 '사계절'이 지방출판사로서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광주를 떠나 서울로 옮겨간 사실에 비추어볼 때 10년여에 가까운 출판사의 경험과 70여종에 이르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양물을 주로 출간해왔던 '한마당'의 귀향이 지닌 의미는 사회과학 출판의 모태로서의 '광주'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마당'과 나란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들불'은 이재숙이라는 젊은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인데, 한때「전라도 마당굿대본집」 등 문예물들을 출판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교육문제와 여성문제를 다룬 책을 주로 내고 있다.「오늘 쓸바귀꽃으로 살아」「일하는 여성의 아름다움」 등은 널리 인기를 끌었던 책.

보다 본격적으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서 운영하는 '참'출판사이다. 작년말 출판사 등록을 한 후 모두 네권의 책을 선보이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교육자치의 가능성을 예측해본「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 미주지역 교포들이 겪는 자녀교육의 고민을 담은「미주 참교육」 외에「문저리 선생님의 회상」「이야기해주세요」 등을 펴냈는데, 늦게 출발한 데 비해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출판사의 유통방식은 '광주'나 '한' '들불' 등이 서울에 영업소를 따로 두어가며 이중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다. "전국 각 지회로 출판을 알리는 공문을 띄우고 주문부수만큼 책을 보내는 방식을 취한다"는데 전교조의 전국조직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판매가 수월한 편이다고 한다. 이밖에 단체에서 운영하는 출판사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빛고을' 출판사가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출판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분별로 비교적 특화가 잘 돼 있는 편

한때 서울의 '한출협'과 같이 이곳에서도 '광주출판문화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몇 안되지만 앞서 언급된 이들 젊은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는 사실에서 광주지역 출판사들의 의식은 충분히 감지된다.

"각 출판사마다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들이어서 책임자나 편집장들이 자주 바뀌는 등 자신들의 출판사도 꾸려나가기에 벅차 광출협이 제기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도중하차하고 말았지만 지역출판사로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나가면서 지역의 특수성과 운동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출판운동을 펼치고자 했었다"는 한 출판인의 말처럼 비록 조직의 틀로 짜여지진 못했으나 이같은 논의가 있었던 때문인 듯 이들 출판사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 않으면서 부문별로 역할을 잘 나눠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만큼의 외형을 갖추고 출판에 임하는 자세 역시 여타지역의 그것보다 앞서있는 것은 광주지역이 이루어낸 성과로 자랑할 만하다. 문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심각한 어려움들-정보부족, 필자부족, 제작여건의 불편함 등등 -과 어떻게 싸워나가면서 독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참신한 기획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활발한 지역부문운동의 성과들을 담아내면서도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고 '운동'의 선명성을 지켜나갈 것인가도 비교적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들 출판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혜옥 기자